

한·중·일 삼국, 종이문화로 교류

동아시아 문화도시 종이문화 특별전 개최... 패션·전시·나눔 키워드 5가지 프로그램 운영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종이문화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따르면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2012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회 한·중·일 문화 장관 회의에서 합의돼 삼국 간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를 기치로 2014년부터 선정해 왔다. 올해는 전주시와 함께 중국의 청두시와 메이저우시, 일본의 시즈오카현이 선정됐다. 시는 '전년문화도시, 전주의 자부심을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상호 문화 이해와 도시 간 협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에 삼국의 종이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종이문화 특별전은 △패션 △전시 △나눔을 키워드로 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10월 7일 전당 야외마당에서 삼국의 전통 종이를 활용한 의상으로 패션쇼를 선보인

다. 한국 30벌, 일본 15벌, 중국 15벌의 작품으로 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7일 오후 5시에는 전당 야외마당에서 우리 전통 종이인 한지와 일본 전통 종이인 화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시연회도 마련됐다. 50여 년 넘게 한지를 만들어 온 전주천년한지관 초지장 박신태, 오성근 장인과 일본 시즈오카현 화지 장인 나이트 쓰네오 씨를 초청해 전통 종이 제조 시연을 진행했다. 한편 색지장 김혜미자 특별전이 10월 10일까지 전당 홍보관 2층에서 열리고 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0호 색지장 김혜미자 선생이 자식처럼 다루고 매만져 온 작품 90여 점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한·중·일 종이문화 교류전이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전주천년한지관 2층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류전은 삼국의 전통 종이와 다채로운

종이 조형 작품을 통해 상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 외에도 10월 8~9일에는 일본 작가 사카타 요시아키 종이 조형 워크숍을 운영한다. 일본 시즈오카현 종이예술가인 사카타 요시아키를 초청해 작가의 조형기법을 배우고 한지와 일본 문화가 융합된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전주천년한지관 홈페이지와 전화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최근 한지가 202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한지의 고장인 전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히며 "이번 특별전을 통하여 삼국이 종이문화로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전주한지가 동아시아 종이문화의 중심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름재 박병순 시조시인 선양 '제5회 마이산의 메아리 전국 시낭송대회' 성료

(사)한국예총진안지회(회장 유종구)는 지난 24일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구름재 박병순 시조시인 선양 마이산의 메아리 전국 시낭송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장을 수여하며 더 큰 관심을 모아 전국 각지의 우수한 시낭송인 61명이 예선 접수하였으며, 그중 예선을 통과

한 19명은 이날 최종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 그동안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구름재 박병순 시조 1편, 자유시 1편씩을 낭송하고, 심사위원 5명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이를 평가해 모두 합산하는 형식으로 등위를 가렸다. 이날 대상은 군산출신 김순민 씨가 차지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시낭송가

인증서가 수여됐다. 금상(1명·상금 100만원)은 서현호(고창) 씨, 은상(2명·상금 50만원)은 윤인국(북포) 이미경(남원) 씨, 동상(3명·상금 30만원)은 이효숙(전주) 채진순(군산) 최민서(광주) 씨가 차지했다. 또한 장려상(5명·상금 10만원)은 김현자(김해) 이종주(괴산) 정영춘(광주) 조옥순(공주) 추은선(장수) 씨에게 주어졌다. /진만=우태민 기자

용동초 '가을 음악회' 10월 18일 개최

용동초등학교(교장 김광열)는 김제교육지원청 마을연계 예술감성교육 '노래가 있는 마을' 지원사업에 선정, 지난 6월부터 동요 및 작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 마을'을 주제로 전교생 30명이 직접 동요를 만들었다. 전교생이 작곡한 동요와 창작 동요를 연습해 오는 10월 18일 용동초 소나무 언덕에서 가을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용동초 친구들이 만든 '숲이 내일이야'라는 합창곡 외에 동요 3곡, 창작 동요 4곡을 노래와 율동으로 공연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리코더 동아리의 리코더 연주와 방과후학교 음악부서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한편 가을 음악회에서는 학생들의 노랫소리를 담은 음반과 개인별로 작곡한 동요를 수록한 동요집을 발간, 관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아트플랫폼 '낙서창고 정' 미디어아트 공모전 수상작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8월 진행한 '전북아트플랫폼 (낙서창고 井) 미디어아트 공모전' 수상작 4점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전북아트플랫폼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25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2022년 12월에 개소한 전북아트플랫폼에서 처음 진행된 미디어아트 공모전으로, 도내 유·무형 문화예술, 관광 자원을 주제로 전국단위로 실시, 최

종 4점을 선정했다. 선정 작품으로는 △한상이의문득, 문화가 펼쳐지는 향연(김지현) △너나들이(김영대) △Meta Cube 전북(이의진) △공간이 춤을 춘다(김미디 어부브)가 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20일 전북아트플랫폼 낙서창고 2층 전시실에서 진행, 상장과 각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장은성 기자

당북초, 전북어린이음악제 초청공연

당북초등학교 당북나래 국악관현악단이 전주 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북어린이음악제'에 초청돼 공연을 펼쳤다고 전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진행된 전북어린이음악제는 음악을 사랑하는 도내 어린이 음악가들이 모여 함께 만드는 음악콘서트다.

이에 따르면 당북초는 당북 민요단의 '아리랑 민요 메들리'와 '뽕지나 칭칭', 그리고 이경섭 작곡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연주했다. 문홍운 교장은 "학생들이 갖고 닦은 실력을 관객들 앞에서 펼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예술적 재능과 역량을 펼칠 기회가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나의 하늘은' 오일파스텔 그림 체험

국립전주박물관, 내달 7일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장진아)은 10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오일파스텔 그림 체험'을 10월 7일 오후 1시와 4시 두차례 국립전주박물관 열린공간 온에서 진행한다. '나의 하늘은'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미술 체험은 네 가지의 하늘 도안 중 각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여 직접 스케치한 후 오일파스텔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도화지에 펼쳐내고, 완성한 그림은 액자에 넣어 인테리어로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가능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회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에 따르면 오일파스텔은 빛깔이 있는 가루 원료에 왁스나 아자나무기름을 혼합해 만든 파스텔을 말하며, 유화에 변화를 주기 위해 밀그림이나 스케치를 그릴 때 섞어 사용하고,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애용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취미로 미술을 배우는 성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일파스텔은 초보자도 손쉽게 그릴 수 있으며, 완성도가 높아 자신의 그림으로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이



들에게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아직도 미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번 체험을 통해 그림을 직접 그려보면서 미술을 이해하고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추석 연휴 박물관 나들이 떠나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28일~10월 3일 '추석 한마당 큰잔치' 개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2023년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석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역사체험극, 퓨전국악, 미술, 저글링, 캐리커처 등 다양한 행사 및 체험을 진행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14시에 대금, 가야금, 해금 등 전통악기로 퓨전국악 공연이 박물관 광장에서 펼쳐져 추석 명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13시에 군산의 일제강점기 수탈역사와 근대 문화재를 체험극 형식으로 벨트와 지역에서 진행하여 군산 근대역사를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29일 11시 미술공연과 10월 1일과 2일 저글링 공연이 박물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14시에는 박물관 3층에 캐리커처 체험을 마련해 박물관 관람

객들은 나만의 캐리커처를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주요 전시로는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 '군산으로 통해(通海!) 기획전이 물결을 따라 군산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양한 주제로 전시되어 있고, 박물관 2층 시민 열린갤러리에 아름도에 단채전 '휴 노래' 전시를 마련했다. 또한, 근대미술관에 손석 작가 초대전 'Re-turn', 장미갤러리에 유영주 작가의 '꽃바람 불바람' 전시가 있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입장을 할 수 있어 많은 귀성객 및 시민들이 박물관에 방문해 '추석 한마당 큰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박물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시를 통해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관용 기자

남원에서의 가을밤 추억 여행

제5회 남원 흥부제 통기타 라이브

10월 8일(일) 오후 8시 ~ 9시
남원 사랑의 광장 무대(남원시 어연동 37-19)

출연진



국민MC 서정우



이태원



최형준



김민영



이창휘

주최 :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